



김 무 진
CJ제일제당 부장 축우PM

고곡가 시대의 낙농 사양관리 포인트

축산 시장 환경의 변화

지난 한해 국내 낙농산업은 다른 어느 해보다 내외부적으로 많은 환경의 변화와 또 그에 따른 대응을 고민해왔던 한해였다. 내부적으로는 국내 경제의 위축, 차음료 출시 및 출산율 감소에 의한 우유 소비 인구의 감소 등의 이유로 우유 소비의 정체 그리고 유제품 수입의 증가에 의한 국내 우유수급의 불균형등의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그런 문제해결을 위한 우유수급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많은 의견의 차이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부적으로는 세계자유무역시장속에서 국가 다자간 협상인 DDA(Doha

Development Agenda)협정은 물론 개별국가간의 협정인 FTA (Free Trade Agreement)이 칠레에 이어 전년 4월 미국과 타결되고 앞으로 EU, 중국, 일본과도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바이오에너지 생산 및 해상운임비 인상 그리고 국제사료작물의 작황부진등의 이유로 국제곡물가는 폭등하여 사료원료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국내 사료업계의 사료가격인상을 초래하여 올해도 벌써 2차례 사료가격인상되었으며, 4-5월중 또 한차례의 사료가격인상이 예상된다. 이는 곧바로 축산업계 전반적으로 생산비 가중으로 축산농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것이다. 이런 국제적 산업환경은 2007년뿐만 아니라

전체곡물의 수급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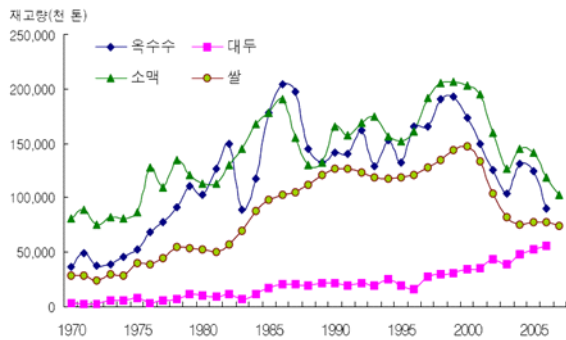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5/06	2006/07 (추정)	2007/08(전망)		변동율(%)	
			2007.12	2008.1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2,016.82	1,991.93	2,077.13	2,075.21	4.2	△0.1
공 급 량	2,420.60	2,381.09	2,412.12	2,411.63	1.3	0.0
소 비 량	2,031.44	2,044.66	2,096.90	2,102.54	2.8	0.3
교 역 량	253.43	255.18	253.56	253.32	△0.7	△0.1
기말재고량	389.16	336.43	315.22	309.09	△8.1	△1.9
기말재고율	19.2	16.5	15.0	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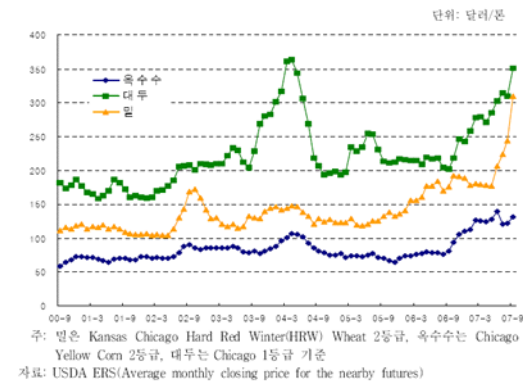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4, January 11, 2008.



주요곡물의 국제가격 동향 (2000.9-2007.9)



세계주요 곡물의 재고량 (1970-2007)



올해 2008년도 더욱 대한민국 축산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축산관련업체 및 축산농가에게 어려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의한 생산비 가중

세계곡물수급은 1990년대 이후부터 소비 증가가 생산증가를 추월하는 현상 지속되어 오면서 재고가 급격히 감소되어 세계 곡물 수급을 어렵게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에 유가인상 및 친환경대체연료개발에 따른 바이오연료용 곡물 수요의 급증이 곡물가인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상운임비의 인상으로 실제 지난 1월만 하더라도 국내 사료생산용 옥수수의 수급까지 위협받기도 했다.

사료업체의 구매추세를 볼 때 곡물가격은 2008년하반기까지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되며, 불행히도 향후 하락 안정세를 기대하기

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부터 현재와는 다른 한단계 높은 수준의 가격대에서 등락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곡물가의 폭등은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사료업체의 가격인상으로 연결되고 곧바로 축산농가의 수익감소와 직결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지난해 배합사료가격이 3-4차례에 걸쳐 25%이상의 가격인상이 시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 년초부터 업체별로 가격인상을 해오고 있으나, 상황하에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전 축산언론에서 사료비 부담으로 생을 포기한 한 양돈농가의 소식을 접했을 때 사료업체에서 일을 하는 한사람으로서 죄인 아닌 죄인이 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시장환경의 변화속에서 축산물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양축농가, 사료회사, 동물약품등이 총체적인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각각의 영역에서 찾아야 할때다.



고곡가시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사료회사의 낙농마케팅을 담당하는 PM으로서 지금과 같은 고곡가시대에 우리 양축농가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하는 질문 받았을 때 곤혹스러울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사료가격인상때마다 양축농가들은 현실적인 사료비용의 절감을 고민하고 저가의 사료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볼 때 국내축산농가가 무척이나 힘들고 어렵구나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낀다. 하지만 다른 축종도 마찬가지지만 낙농의 경우 우유생산비중 사료가 차지하는 비용은 물론 목장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조사료까지 포함해서 50% 내외의 수준이다. 따라서 생산비 가중에 기인한 수익의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은 생산비 절감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얼마나 생산성을 높이는가하는 부분이 앞으로 목장의 존폐의 관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양관리 포인트

어려울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낙농사업의 목표인 우유를 보다 많이 생산하기 위해 목장의 급여관리, 번식관리, 착유관리 그리고 경영관리를 다시한번 꼼꼼하게 살펴 봐야 한다.

먼저 고능력우 위주의 정예 우군으로 유생산량을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산비와 생산성을 잘 비교하여 번식문제우나 저능력우를 우선 도태해야만 한다.

이제는 착유우 두당 연간 305일 산유량 10,000kg 생산이 기본이다.

2007년도 농협중앙회 한국유우군 능력검정 사업보고서를 보면 검정농가의305일 평균유량은 2006년에 비해 285kg 증가한 9,556kg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 배합사료의 인상으로 인한 추가 생산비는 결국 생산성으로 극복해야한다. 결국 산유량의 증가만이 생산비의 절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고능력우에 맞는 급여관

구분	도태대상
무혈통	외부구입우, 자연종부우
외모상 하자	홀스타인 순종이 아닌것, 일반 외모상 하자,유용특성이 좋지 않은것
저능력우	(반추위, 흉위), 비유기관(유방폐쇄,부유두,유두형태) 6,000kg 저능력우, 목장성적 하위 25% 이내 우군
번식장애우	수태당 3번이상 수정, 새끼를 잘 못빼는 소, 분만간격 15개월이상 공태기간 120일 이상
기타	목장의 전체적인 시스템에 적응을 못하는 소 만성 유방염우 / 발굽질병우 / 과비우 착유시간이 긴 소 : 10분이상 약습을 가진소, 생시체중이 불량(36kg 이하)또는 육성기 발육 불량우



〈착유 30두 목장 3년간 분만간격 14개월에서 13개월로 단축시 수익〉

구분	분만간격 14개월	분만간격 13개월	차이
착유두수	30두		
송아지생산두수	77 30두×3년×12개월/14개월	83 30두×3년×12개월/13개월	6
송아지판매수입	30800 77 × 400천원	33200 83 × 400천원	2,400
비유횟수	77	83	6
년간산유량	577500 77 × 7500kg	622500 83 × 7500kg	45,000
년간유대수입	404250 년간산유량×0.7천원	435750 년간산유량×0.7천원	31,500
수입계	435050	468950	33,900

리, 그리고 강건한 육성우를 키우고 건유기와 비유초기 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할 것이다.

다음은 번식관리 문제 해결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다. 실제 30두 착유규모의 목장에서 분만간격 1개월 단축은 연간 11,000천원 수준의 추가 수익을 준다. 결국 최대 유량을 생산하기 위해 목장에서 가장 고민하고 선결해야 하는 과제는 번식문제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실한 육성우 관리 및 전환기 사양관리가 관건이다. 강건한 육성우를 키우고, 전환기 다발하는 사고를 최소화하고 최적의 영양관리를 함으로써 착유우의 연산성을 최대화해야 한다.

착유우 1두당 산차를 1회만 더 가져갈 수 있다면 두당 1,500천원의 생산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낙농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평균 산차가 2.5산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산차 1산의 연장은 착유우를 만드는 육성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산차가 높은 착유우의 발달된 반추위는 좀 더 조약한 건초도 급여 가능하게 하므로 급여비용의 절감까지 기대 할 수 있다.

맺음말

앞으로는 생산성이 더 강조되는 시기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생산비 절감도 중요하지만 낙농사업의 존폐는 생산성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목장의 생산성을 위해서 사료회사도 새로운 원료소싱을 통한 사료가격인상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며, 보다 안정된 품질의 제품과 목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목장은 단순히 소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경영인의 마인드로 젖소 한마리 한마리



육성우 사육비용	
1. 송아지비용	40만원
2. 사료비용	190만원
3. 인공수정	10만원
4. 기타비용	60만원
<hr/>	
계	300만원

개체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즉 개체 진단을 통한 급여, 번식, 질병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체별로 최대의 유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런 상호간의 노력만이 어려운 축산 현실을 극복하고, 앞으로 다가 올 고품가시대에 낙농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